



은행별 차별화된 실적. 그러나 호실적에도 반응없는 주가

은행 Weekly | 2026.4.27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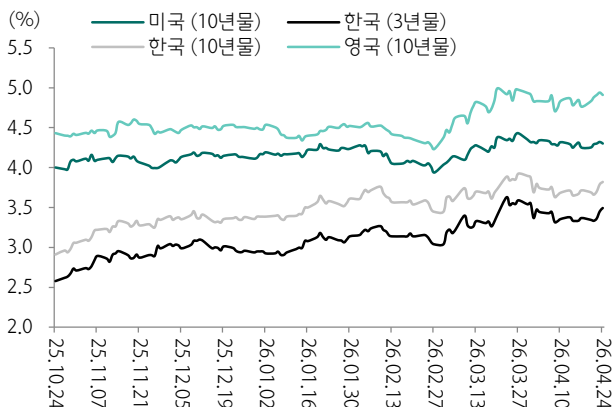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에 4~5%라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 인터넷은행들에도 시중은행(1%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가계대출 관리 방침을 전달한 만큼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
- 올해 예산이 약 51조원인 서울시 차기 금고 수주전의 막이 오름. 우리은행이 현 금고지기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설욕전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일각에선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금고지기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우려
- 금융당국의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이 두 달 넘게 표류 중이며 이달 남은 회의는 한 차례뿐(29일)이지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 우세. 금융위원회는 잇단 소송 패소 부담까지 겹치며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
-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카드사에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전년말 대비 1~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 그러나 금융당국이 권고한 올해 목표치를 이미 대부분 초과해 상반기까지 카드사가 카드론 공급을 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4월 2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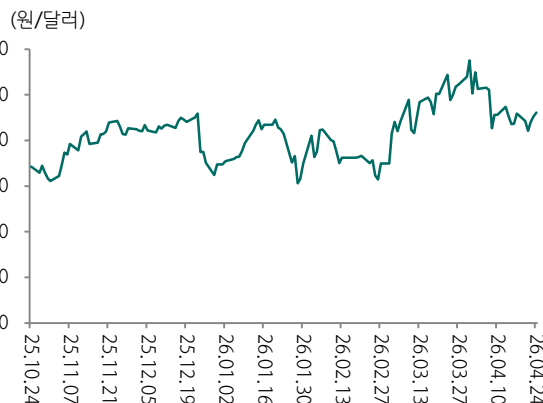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Weekly Net Buy (십억원)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국내기관 | (연기금) | 외국인 | 개인 |
| KOSPI | 1.64 | 8.5 | 19.2 | | 5,305,337.8 | 4.6 | 16.6 | 29.8 | 53.7 | 1,006.7 | 165.6 | -1,967.4 | 1,121.2 |
| 은행 | 0.69 | 8.13 | 8.87 | 0.63 | 209,971.7 | -1.4 | 8.4 | 17.5 | 25.0 | 29.6 | -91.4 | -192.9 | 153.3 |
| KB 금융 | 0.88 | 9.16 | 9.93 | 0.76 | 58,686.7 | -3.0 | 7.1 | 16.1 | 26.2 | 14.0 | -16.0 | -108.8 | 93.3 |
| 신한지주 | 0.76 | 9.50 | 9.10 | 0.65 | 47,465.4 | 0.4 | 11.1 | 19.2 | 30.0 | 29.2 | -9.9 | -16.9 | -11.3 |
| 우리금융 | 0.65 | 7.79 | 8.69 | 0.54 | 25,729.4 | -1.8 | 8.5 | 18.6 | 25.2 | -7.0 | -20.2 | -33.1 | 35.9 |
| 하나금융 | 0.68 | 7.92 | 9.08 | 0.63 | 33,829.5 | -0.2 | 15.8 | 22.0 | 31.0 | -7.5 | -16.0 | -3.6 | 9.9 |
| 기업은행 | 0.48 | 6.35 | 7.56 | 0.55 | 17,822.5 | -0.9 | -3.5 | 6.2 | 6.7 | -6.0 | -10.6 | -5.9 | 11.9 |
| BNK 금융 | 0.51 | 6.89 | 7.66 | 0.53 | 5,896.2 | -0.8 | 5.6 | 19.5 | 19.7 | 4.8 | -11.3 | -11.2 | 2.8 |
| iM 금융 | 0.45 | 6.27 | 7.46 | 0.47 | 3,067.9 | 2.1 | 14.6 | 32.6 | 22.8 | 9.9 | -0.1 | -8.1 | -1.9 |
| JB 금융 | 0.82 | 7.24 | 11.93 | 1.00 | 5,402.9 | -7.4 | -0.9 | 18.1 | 11.9 | -7.7 | -7.3 | -5.1 | 12.7 |
| 카카오뱅크 | 1.70 | 20.97 | 8.31 | 0.72 | 12,071.2 | -0.2 | 6.3 | 7.7 | 17.1 | -2.2 | -1.4 | 8.2 | -6.0 |
| 삼성카드 | 0.68 | 9.44 | 7.34 | 2.02 | 6,233.2 | -1.1 | -9.1 | -2.5 | -3.8 | -7.5 | -2.4 | 3.6 | 4.2 |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1.4% 하락해 KOSPI 상승률 약 4.6% 대비 큰폭 초과하락. 4주째 초과하락세 지속 중. 현실과는 달리 미국과 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위주의 상승으로 KOSPI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는 대형은행지주사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별다른 주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 케빈 워시 청문회 이후 상승 폭 확대.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67%대로 상승했기 때문. 주중에 휴전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도 국채금리 상승의 또다른 배경. 전일 2차 협상 최종 결렬로 인해 금리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1%로 한주간 6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79%로 8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더 큰폭 상승. 중동리스크에 더 영향을 받은데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와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82%로 한주간 10bp 상승했으며, 3년물은 3.50%로 13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으로 다시 상승해 1,476.8원으로 마감. 한주간 16.8원 상승. 지난주 외국인인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2.0조원과 1,930억원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1.2조원과 300억원 순매수. 그러나 은행 자사주 매입분 제외시 국내 기관도 사실상 은행주에 대해 순매도인 상황
- 전주 특징주는 JB금융.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발표 전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한주간 은행 중에서 가장 큰폭인 7.4% 하락. 그 외 KB금융도 주가가 3.0% 하락해 타행대비 부진했는데 역대급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1,000억원 넘게 출회되면서 약세를 나타냄. 반면 iM금융은 주가가 2.1% 상승해 홀로 강세. 최근의 주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PBR이 0.45배에 불과한데다 CET 1 비율 개선 요인에 따른 주주환원을 확대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iM금융은 최근 국내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 중
- 1분기 은행 실적의 특징은 은행별로 실적이 차별화되었다는 점임.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던 반면 1분기에는 그렇지 않았음. 증권사회사의 비중이 높은 대형은행지주사들의 경우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우리금융과 JB금융은 일회성 비용 요인과 유가증권관련손실로 인해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 다만 실적이 주가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는데 이는 개별은행들의 실적보다는 KOSPI내 업종선호도와 중동 사태 항방에 따른 매크로 우려 등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 중동사태 발생 초기에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방어적 매력이 부각되던 은행주가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금리보다는 credit risk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는 KOSPI내 주도업종 위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쓸림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예를 들면 주도업종 매수를 위해 유동성이 양호한 은행주 매도). 지난주에는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었던 점도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그러나 실적 발표 완료와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가 이루어진만큼 금주부터 다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재개될 전망
- 지난주의 은행주 약세에는 1분기 CET 1 비율이 상당폭 하락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KB금융 QoQ -19bp, 신한지주 -16bp, 하나금융 -29bp 하락) 해외장기지분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효과가 최종 수치에 수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에 따른 상승 효과도 2분기에 반영되면서 다시 크게 상승 예상.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의 경우는 상기 요인으로만 약 25~30bp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2분기 CET 1 비율이 13.4%를 넘어설 공산이 큼. 한편 1분기 NIM이 우리 예상보다 더 상승했고, 3월 월중 NIM은 전월대비 대폭 상승. 적어도 2분기까지는 상당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연간 NIM은 평균 약 6~7bp 이상 상승 예상
- 대형은행지주사들의 양호한 실적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NIM 상승세 및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 확대 지속 등으로 대형은행들의 경우 2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4월의 은행주 underperform 폭이 KOSPI 대비 -17%p에 달한다는 점에서 마냥 계속 소외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 이란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올 경우 의외로 타섹터대비 반등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듯. 펀더멘털이 계속 양호할 수 있는 대형은행지주사 위주로 관심 확대 권고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00,000원),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

- KB금융은 양호한 실적 시연에도 외국인 비중이 계속 축소되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양상. ELS 과징금 결론 지연 이슈 등도 조만간 결론이 예상되고,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을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리딩뱅크라는 점에서 비중확대 전략 계속 유효
- 하나금융은 그동안 환율 우려로 약세를 보여 왔는데 주가에 기반영되면서 향후 영향력 제한적일 듯. 2분기 강력한 NIM 상승 폭과 대손비용 감소로 이익가시성이 높아졌고, 2분기 CET 1 비율 상승 폭도 커 1분기 비율 하락에 따른 우려는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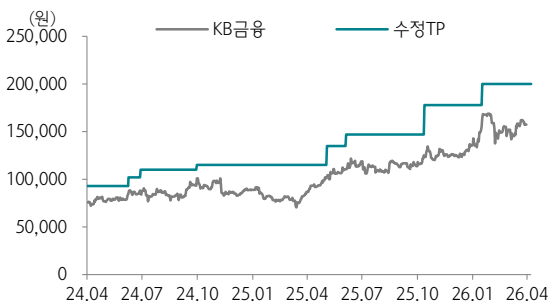
Global Peer Table

(2026년 4월 24일 종가 기준)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 KOSPI | 1.64 | 8.5 | 19.2 | | 5,305,337.8 | 4.6 | 16.6 | 29.8 | 53.7 |
| 은행 | 0.69 | 8.1 | 8.9 | 0.63 | 209,971.7 | -1.4 | 8.4 | 17.5 | 25.0 |
| KB금융 | 0.88 | 9.2 | 9.9 | 0.76 | 58,686.7 | -3.0 | 7.1 | 16.1 | 26.2 |
| 신한지주 | 0.76 | 9.5 | 9.1 | 0.65 | 47,465.4 | 0.4 | 11.1 | 19.2 | 30.0 |
| 우리금융 | 0.65 | 7.8 | 8.7 | 0.54 | 25,729.4 | -1.8 | 8.5 | 18.6 | 25.2 |
| 하나금융 | 0.68 | 7.9 | 9.1 | 0.63 | 33,829.5 | -0.2 | 15.8 | 22.0 | 31.0 |
| 기업은행 | 0.48 | 6.4 | 7.6 | 0.55 | 17,822.5 | -0.9 | -3.5 | 6.2 | 6.7 |
| BNK금융 | 0.51 | 6.9 | 7.7 | 0.53 | 5,896.2 | -0.8 | 5.6 | 19.5 | 19.7 |
| iM금융 | 0.45 | 6.3 | 7.5 | 0.47 | 3,067.9 | 2.1 | 14.6 | 32.6 | 22.8 |
| JB금융 | 0.82 | 7.2 | 11.9 | 1.00 | 5,402.9 | -7.4 | -0.9 | 18.1 | 11.9 |
| 카카오뱅크 | 1.70 | 21.0 | 8.3 | 0.72 | 12,071.2 | -0.2 | 6.3 | 7.7 | 17.1 |
| 삼성카드 | 0.68 | 9.4 | 7.3 | 2.02 | 6,233.2 | -1.1 | -9.1 | -2.5 | -3.8 |
| 미국 | | | | | | | | | |
| S&P 500 | 4.87 | 21.9 | 20.8 | 5.01 | 63,850.5 | 0.6 | 9.4 | 3.9 | 4.7 |
| 은행 | 1.54 | 12.4 | 12.4 | 1.08 | 2,083.7 | -1.8 | 6.7 | 2.3 | -3.1 |
| Wells Fargo | 1.42 | 11.4 | 12.8 | 0.99 | 243.4 | -2.4 | -0.2 | -8.2 | -14.8 |
| JPM | 2.29 | 13.9 | 17.0 | 1.27 | 826.9 | -0.7 | 6.0 | 4.1 | -4.3 |
| CITI | 1.09 | 11.8 | 9.6 | 0.71 | 219.5 | -3.2 | 12.5 | 13.3 | 9.7 |
| BOA | 1.29 | 11.7 | 11.6 | 0.95 | 371.9 | -3.5 | 8.1 | 1.2 | -5.4 |
| US Bancorp | 1.38 | 10.9 | 13.0 | 1.16 | 86.4 | -2.4 | 7.7 | 1.2 | 4.2 |
| PNC | 1.45 | 11.7 | 12.7 | 1.25 | 88.4 | -2.2 | 7.4 | 1.0 | 5.3 |
| BB&T | 1.02 | 11.2 | 9.3 | 1.04 | 63.0 | 0.3 | 11.9 | 3.4 | 3.1 |
| 중국 | | | | | | | | | |
| 상해A주지수 | 1.40 | 14.2 | 10.0 | 1.29 | 64,862.8 | 0.7 | 5.1 | -1.3 | 2.8 |
| 은행 | 0.55 | 6.1 | 9.0 | 0.74 | 10,520.7 | 0.6 | 2.1 | 5.0 | -4.0 |
| 공상은행 | 0.66 | 7.3 | 9.1 | 0.67 | 2,593.0 | 1.9 | 3.6 | 5.1 | -4.4 |
| 건설은행 | 0.68 | 7.4 | 9.4 | 0.75 | 2,082.3 | 3.5 | 4.5 | 12.6 | 5.0 |
| 농업은행 | 0.84 | 8.6 | 9.6 | 0.60 | 2,413.4 | -0.3 | 8.3 | 4.3 | -8.3 |
| 중국은행 | 0.65 | 7.8 | 8.6 | 0.64 | 1,761.7 | 0.7 | 6.2 | 10.3 | 1.4 |
| 교통은행 | 0.50 | 6.5 | 7.8 | 0.61 | 598.3 | 0.3 | 2.4 | 5.1 | -3.7 |
| 초상은행 | 0.82 | 6.6 | 12.8 | 1.13 | 1,014.1 | -0.4 | 0.3 | 5.0 | -6.5 |
| 일본 | | | | | | | | | |
| NIKKEI | 2.72 | 23.8 | 11.3 | 3.83 | 957,433.8 | 2.1 | 15.0 | 11.7 | 18.6 |
| 은행 | 1.29 | 13.1 | 9.8 | 0.46 | 112,732.5 | -5.2 | 4.9 | -0.1 | 11.7 |
| Mitsubishi UHF | 1.46 | 14.0 | 10.9 | 0.61 | 32,701.5 | -4.0 | 6.0 | -1.4 | 10.5 |
| Sumitomo Mitsui Financial | 1.31 | 12.8 | 10.8 | 0.61 | 20,465.6 | -4.5 | 5.5 | -2.0 | 6.1 |
| Mizuho | 1.43 | 13.2 | 11.4 | 0.43 | 15,700.1 | -5.0 | 5.6 | -3.4 | 12.8 |
| Sumitomo Mitsui Trust | 1.09 | 11.8 | 9.3 | 0.43 | 3,577.9 | -4.8 | 4.6 | 3.3 | 7.2 |
| 유럽 | | | | | | | | | |
| MSCI Europe | 2.27 | 15.4 | 14.2 | 1.76 | 14,782.6 | -2.2 | 6.1 | 1.6 | 3.1 |
| 은행 | 1.34 | 10.2 | 13.3 | 0.73 | 1,847.9 | -5.3 | 9.0 | -0.4 | -0.1 |
| HSBC | 1.64 | 11.1 | 15.0 | 0.84 | 227.0 | -3.2 | 11.8 | 10.3 | 12.5 |
| Santander | 1.36 | 10.3 | 13.5 | 0.77 | 149.8 | -7.6 | 7.6 | -2.7 | 1.3 |
| BNP Paribas | 0.81 | 7.6 | 10.8 | 0.46 | 98.1 | -5.6 | 7.3 | 1.0 | 10.2 |
| Credit Agricole | 0.70 | 7.5 | 9.6 | 0.26 | 51.7 | -3.9 | 6.2 | -2.1 | -2.6 |
| Deutsche | 0.75 | 8.3 | 9.6 | 0.47 | 51.7 | -5.3 | 7.3 | -18.0 | -18.3 |
| Unicredit | 1.45 | 8.9 | 16.7 | 1.24 | 96.5 | -8.6 | 6.7 | -8.5 | -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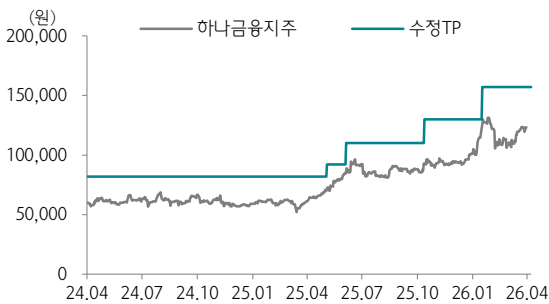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 날짜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2.11 | BUY | 200,000 | -27.10% | -12.64% |
| 25.11.7 | BUY | 178,000 | -22.33% | -14.76% |
| 25.6.30 | BUY | 147,000 | -20.30% | -16.81% |
| 25.5.29 | BUY | 135,000 | -24.56% | -11.30% |
| 24.10.25 | BUY | 115,000 | -21.71% | -11.64% |
| 24.7.24 | BUY | 110,000 | -15.97% | -13.43% |
| 24.7.4 | BUY | 102,000 | -19.26% | -9.25% |
| 24.3.21 | BUY | 93,000 | -12.89% | -0.51% |
| 24.2.5 | BUY | 79,000 | | |

하나금융



| 날짜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2.11 | BUY | 157,000 | -25.41% | -6.00% |
| 25.11.7 | BUY | 130,000 | -20.85% | -12.27% |
| 25.6.30 | BUY | 110,000 | -14.77% | -8.48% |
| 25.5.29 | BUY | 92,000 | -25.94% | -16.10% |
| 24.3.21 | BUY | 82,000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 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 투자등급 | BUY(매수) | Neutral(중립) | Reduce(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 96.74% | 3.26% | 0.00% | 100% |

* 기준일: 2026년 4월 24일